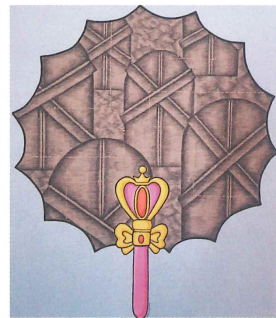




《Kitscholy#1. 2020》



《Kitscholy#2. 2020》

CHOI CHANJOO

2013 B.F.A Majored Ceramic and glass in Hongik university
2018 M.F.A Majored Ceramic in Hongik university

2016-2020 Artist-in-residence program of Sindang Creativity Arcade

2019 Solo exhibition [I saw myself lying in a pink house on the hill] in Artbit gallery Seoul, Korea. and four exhibitions.

チェ・チェンジュ

2013 弘益大学 陶磁器とガラス専攻卒業
2018 弘益大学 大学院修士課程陶磁器専攻卒業

2016-2020 新堂クリエイティブ・アーケード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

2019 個展 [あの丘の上のピンクの家で 私が横になっているのを私は見て] (アートビートギャラリー、ソウル)他、4回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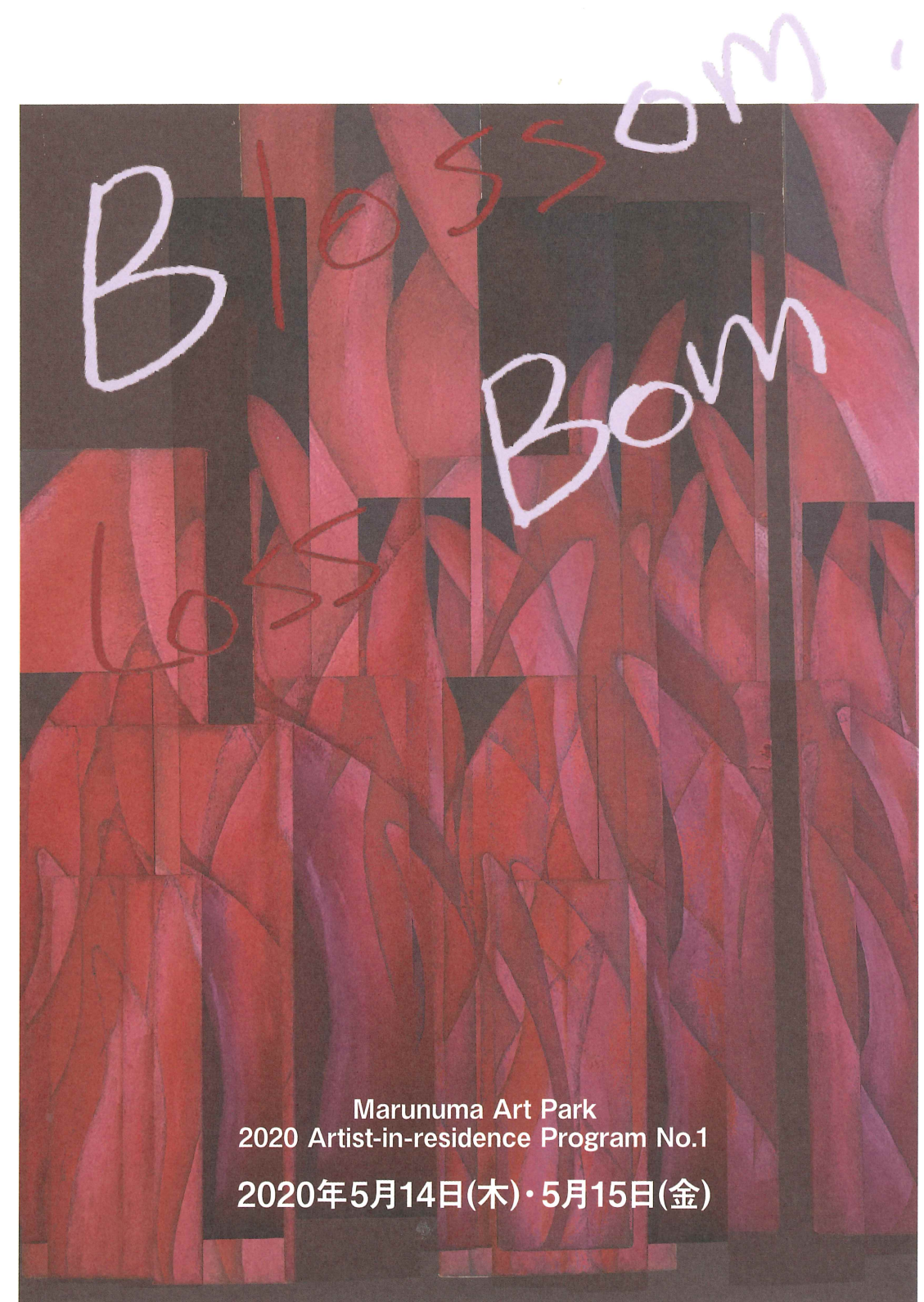
チェ・チェンジュ展/Blossom, Loss Bom

主催 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文化振興院
後援 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総合コーディネーター 河明求
デザイン 竹下和貴子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www.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チェ・チェンジュ展
CHOI CHANJOO



《Blossom, fear. 2020》

Marunuma Art Park
2020 Artist-in-residence Program No.1
2020年5月14日(木)・5月15日(金)

この度、丸沼芸術の森レジデンス11人目の作家、チェ・チェンジュは弘益(ホンイク)大学で陶芸を学び、現在はソウル市中央市場の地下にある新堂(シンダン)創作アーケードという工芸作家のためのスペースで制作活動を行なっている。表現方法は絵画やインスタレーションなどで現在まで個展を中心にギャラリーなどで発表を行ってきた。

昨年 の 個 展 で は 「あ の 丘 の 上 の ピンク の 家 に 私 が 横 た わ っ て い る の を 私 は 見 て 」 と い う タ イ ト ル を つ け た 。 意 味 深 な タ イ ト ル で あ る が 韓 国 で は 精 神 病 院 の こ と を 「丘の上に立つ白い家」とも言い「ピンクの家」はそこからの引用で別の世界へ誘うためのキーワードらしい。そのせいか彼女の描く動物や家、植物など日常的なモチーフが誘う風景は、まるで童話の世界のようでありながら我々の感情に「ざわつき」を与える。また、彼女が絵画の支持体としてよく使う素材に陶器がある。大学で陶芸を学んだのであるから当然の選択かもしれないが、陶器そのものは制作せずにそのイメージだけを流用する。壊れやすいけれど大切に扱えば普遍的な強度を持つものとし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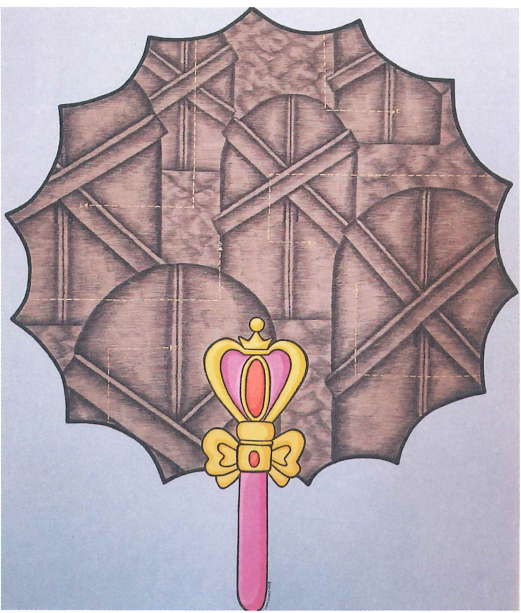
「一人の人間の行動や発言は精神的な背景を持っているとも感じている。」というチェの発言から人間への非常に強い興味が窺える。また同時にイメージが固定化されることを嫌うという。これは「オープンダイアログ」という開かれた対話による精神治療法のあり方と似ている。その目的は解決でなく、全く対等な人間同士の対話自体に価値があ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何をやっても長続きしないと語るチェだが、幼少の頃より美術を習慣のようにやってきた。個人的でありながら時として社会的なメッセージにもなりうる美術はパラレルワールドであり、そんな自由な空間が彼女の存在を支え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筆者がスタジオを訪ねた日、チェは大きく開けられた東向きの窓から見える景色を描いていた。丸沼に滞在する作家が最初に行う儀式のようになっているそうだが今年の春は少し様相が違って見える。風も温み、桜も咲く静かな季節なのに人間の非力さを感じて、落ち込むこともあるという。

2020年の「今」世界各地では今日も見えない壁に囲まれている。チェは「ここ」に見える景色にどのような色の家を建て、どんな窓を開けてくれるのだろうか。

東京造形大学 教授
彫刻家 大橋博

《Daight, nay. 2020》



《Coexistence#5. 2018》

《Kitscholy#2. 2020》

이번 마루누마 예술의 숲 국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11번째작가인 최첸주는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현재 서울시 중앙시장의 지하에 설립된 신당창작아케이드 라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에서 제작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주된 표현방법은 회화와 공간설치 등으로 현재까지 개인전을 중심으로 갤러리 공간들에서 발표 해 왔다.

작년에 개최된 개인전에서는 [저 언덕 위의 분홍 집에 내가 누워있는 것을 나는 보았고] 라는 전시 타이틀을 붙였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타이틀로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는 정신병원을 가리켜 속칭 [언덕 위의 하얀 집] 이라고도 통용되어 [분홍 집]은 그 부분을 인용하여 별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키워드로 활용 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그녀가 그리는 동물이나 집, 식물 등 일상적인 모티브가 자아내는 풍경은 마치 동화의 세계와도 같아서 우리들의 감정에 [술렁임]을 선사한다. 또한 그녀의 회화를 이루는 화면 역할로 자주 사용되는 소재 중에는 도자기가 있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녀는 도자기 기물 자체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으며 그 물성과 이미지만을 사용한다. 깨지기 쉽지만 소중히 간직하면 보편적인 강도를 영원히 지속하는 물건으로써 말이다.

[한 사람의 행동과 발언은 정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하는 최첸주의 표현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그녀의 무척이나 강한 흥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지가 고정화 되어버리는 것이 싫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열린 대화에 의한 정신 치료법의 개념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대등한 인간과 인간의 대화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해보아도 장기간 지속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던 최첸주 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미술은 습관처럼 접해왔다고 한다. 그녀에게 개인적이면서도 시기에 맞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미술은 패럴렐월드 이며 그러한 자유로운 공간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활짝 열린 동쪽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마루누마에서 같은 작업실에 체류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하나의 관례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올해 봄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바람도 따사롭고 빗꽃도 울창하고 한가로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이 실감되어 기운이 빠져버릴 때도 있다고 한다. 2020년 [지금] 세계각지에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있다. 최첸주는 과연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에 어떤 색 집을 지어 어떤 창문을 열어 보여줄 것인가.

동경조형대학교 교수
조각가 오하시 히로시